

■ J트러스트는 어떤 회사?

매출 70%이상 대부업 관련
고소영 CF계약 철회 해프닝

일본 내에서도 계열사 불법추심 등 논란

배우 고소영은 지난달 J트러스트 그룹의 광고를 찍었다가 여론의 못매를 맞고는 계약을 철회했다. 'CF 킨'의 이미지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이처럼 국내 정서는 대부업, 그리고 일본 자본에 대해 비판적이다.

J트러스트는 일본 내에서 'Japan Trust'로 불리는 회사다. 일본에서 1977년 3월 대부업체 이토상사로 출발해 사세를 확장했고, 2009년 7월 현재와 같은 지주회사 형태를 갖췄다. 이때 ㈱J트러스트로 상호를 변경했고, 산하에 금융 부동산 IT 등 여러 업종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매출의 80% 이상은 금융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J트러스트의 주요 계열사들은 일본 내에서 불법추심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채권회수에 주력해 일본 내에서 평판이 좋지 않다. 특히 대주주이자 대표인 후지사와 노부요시는 2005년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일본 경제를 뒤흔든 '라이브도어 사건'에 연루돼 있다.

금융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J트러스트는 경영난에 허덕이는 대부업체를 헐값에 인수해 채권추심을 중점사업으로 전개해 인수대금 회수에 주력한 뒤, 활용가치가 없어지면 회사를 매각하거나 청산하고 또 다른 회사를 사들이는 식의 운영을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에게 높은 할당량 대비 낮은 급여로 자언타락을 유도했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사측과 맞서고 있다.

J트러스트는 2011년 4월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를 인수하면서 한국시장에 진출했고,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틈타 2012년 10월 1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미래저축은행(현 JT천애저축은행)을 1000억원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인수했다. 인수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승인이 나지 않자,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KC카드(현 J트러스트카드, 한국카드회사와 달리 대부업을 함)로 우회 인수해 국내 최초로 저축은행을 집어삼킨 대부업체가 됐다.

2013년에는 하이캐피탈대부와 KJ대부(원더풀론)를 인수해 단기간에 국내 대부업체계의 큰손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대부업과 관련된 사업을 모두 정리했다고 하지만, 이는 지난해 SC캐피탈과 SC저축은행 인수 과정에서 대부업을 폐지하라는 금융당국의 제안을 따르기 위해 대부업체를 저축은행에 매각한 교육지책에 따른 것이었다.

J트러스트 그룹 전체 매출의 70% 이상은 대부업에서 나오고 있다. 또 일본의 저금리 자금을 조달해 한국시장에서 전체 매출의 20% 가량을 벌어들이고 있다. 법인세 역시 일본(40%)에 비해 한국(20%)이 낮다.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편집 | 정용문 기자 sadzoo@donga.com

히어로즈, '검은돈' 왜 감수하려 했나

'네이밍 스폰서 파문' 일파만파

100억원 후원 비용과 구단운영 간섭 배제
다른 유치희망 기업과 지원자가 커 '고심'

히어로즈의 '네이밍 스폰서 파문'이 겹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히어로즈가 일본계 금융기업 J트러스트 그룹(JT)과 네이밍 스폰서 계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뜨거운 못매를 맞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4%가 JT의 히어로즈 네이밍 스폰서 참여를 반대했다. 찬성은 11.6%에 그쳤다.

●히어로즈는 '부정적 파장' 예상하지 못했나?

히어로즈는 과연 국민적 저항과 반감이 거셀 줄 몰랐을까. 그렇지 않았다. 히어로즈의 고심은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야구단을 운영하는 '주체' 히어로즈와 스폰서는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 스폰서의 입김이 거셀수록 히어로즈가 자랑하는 '발 빠른 의사결정 구조'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감독 선임부터 선수 기용, 트레이드, 프런트 역할에 따른 권한이 스폰서에 의해 좌우된다면 지금까지 정착된 시스템마저 흔들릴 수 있다. 틀이 무너지면 성적이 떨어지고, 이는 관중 동원 실패와 구단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에 히어로즈는 운영에 대한 자치권을 반드시 지켜내려고 한다. 구단 관계자는 "스폰서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수평

적인 관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JT의 제안은 솔깃했다.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네이밍 후원 비용과 다양한 인센티브는 제쳐놓더라도, 구단 운영에 대한 일체의 간섭도 배제하기로 하면서 히어로즈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이다. 히어로즈는 협상이 오가면서 이를 재차 확인했고, 네이밍 스폰서를 유치하려는 타 기업에 비해 깊은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쌓은 신뢰에 금이 갈까?

히어로즈가 JT와 계약을 마친 것은 아니다. 여러 가능성을 놓고 다른 유치 희망 기업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JT와의 네이밍 스폰서 협상과정이 알려지면서 구

단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히어로즈는 2008년 창단하면서 자금난으로 구단 운영을 포기한 현대 선수단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현대를 인수할 만한 자금이 풍족하지 않아 내린 결정이었다. 이후에도 수차례 자금난을 겪으면서 주축선수들을 팔아넘겼다. 야구팬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트레이드와 신인드래프트를 통해 우수한 선수들을 키워오면서 3년 연속(2013~2015년)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시리즈 준우승이라는 최고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유망주 육성 시스템과 체계적 선수관리로 큰 관심을 끌었다. 구단 관계자는 "최근 6년간 쌓아온 이미지가 실추될까봐 걱정스럽다"고 하소연했다.

박성준 기자 spark47@donga.com



히어로즈가 일본 금융기업 J트러스트 그룹과 네이밍 스폰서 계약 협상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일본에서 대부업으로 성장한 J트러스트는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프로야구까지 손을 뻗치게 됐고, 여론은 몹시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다. 히어로즈의 앞날이 궁궁하다.

스포츠동아DB

히어로즈-J트러스트, 네이밍 스폰서 계약

반대 여론 64.0% vs 찬성 11.6%

대다수 국민은 히어로즈와 J트러스트 그룹의 네이밍 스폰서 계약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

표 이택수)에 따르면 히어로즈와 J트러스트의 계약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의견(64.0%)이 찬성 의견(11.6%)을 압도했다. '잘 모름'은

24.4%였다. 또 지역별로는 부산·경남·울산(찬성 9.0%·반대 71.5%)에서 반대가 70%를 넘었고, 대전·충청·세종(4.8%·69.6%), 서울(9.3%·65.9%), 경기·인천(13.1%·64.4%), 대구·경북(12.3%·60.2%), 광주·전라(17.5%·49.5%)의 순으로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40대(찬성 11.5%·반대 68.8%)에서 반대가 가장 높았고,

30대(14.2%·68.1%), 20대(6.7%·65.9%), 50대(13.5%·64.7%), 60대 이상(11.8%·54.0%)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2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 응답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였다.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일본계 대부업체 스폰서 참여...한국 프로스포츠 부끄러운 자화상

‘사채’라는 부정적 이미지 세탁 도구 전략
스포츠단 투자환경·독립경영 한계 노출

히어로즈가 일본계 금융기업 J트러스트 그룹과 네이밍 권리를 놓고 협상하는 것은 어쩌면 지엽적 문제일 수도 있다. 근본적 화두는 어쩌다가 일본 금융회사가 한국 프로스포츠단의 네이밍 스폰서를 하려고 나서는지 지경까지 됐느냐다.

에당초 일본 대부업체들의 한국 진입 장벽을 너무 낮췄כן 우리 정부에 '원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시중 자

금이 모자라자, 정부는 그 대안으로 일본 자본을 끌어들었다. 가뜰이나 일본 내에서 강력한 규제를 받아 살 길이 막막했던 일본 대부업체들에게 한국시장은 활로나 마찬가지였다.

한국에서 이들 회사는 단기간에 급성장을 거듭했고, 한국의 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에까지 이르렀다. 2000년대 후반 국내 저축은행들 중 상당수가 부실대출로 연쇄도산 위기에 처하자, 일본 대부업체들이 또 한번 한국 정부의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이들은 대부업체에서 저축은행 중심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고, 심지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매입까지 넘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자금력이라면 남부러울 것 없는 세력을 구축한 이들 일본계 금융기업의 최종적 숙원은 이미지 세탁이었다. '사채'라는 부정적 그늘을 벗어던지고, 한국민에게 우호적 인상을 만들어 뿌리를 내리겠다는 바람이었다. 이미 일본계 금융회사는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넣은 CF를 방송에 반복적으로 내보내 호의적 인상을 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홍보활동에도 규제가 따랐고, 단발성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명분도 확실하고, 지속적으로 국민들 뇌리에 호감을 입력하기 위한 최선의 도구가 스포츠와의 결합이었다. 이미 배구단에서 성공 사례가 나왔다. 이에 자극 받은 J트러

스트는 한국의 최고 인기스포츠인 야구단에 메인 스폰서로서 참여를 시도한 것이다.

탄탄한 자금 지원 아래 독립경영을 하고 싶은 히어로즈와 이해관계가 일치한 지점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히어로즈도 부정적 여론을 의식하지 못했을 리 없다. 이런 히어로즈의 교육지책 뒤에는 결단 화려한 한국 프로스포츠의 현실이 숨어 있다. 고층 없는 저성장의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에서 이제 대기업도 스포츠단에 투자할 여력이 많지 않다. 게다가 kt의 야구단 참여로 이제 할 만한 그룹은 다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있다. J트러스트의 야구계 출몰은 건전경영이 가능한 기초 체력 없이 선수 몸값만 올려놓은 한국 프로스포츠의 부끄러운 자화상이기도 하다.

김영준 기자 galzby@donga.com

KBO 사상 첫 자립형 구단 히어로즈의 수난사

재정난에 네이밍 스폰서 변경 우여곡절

삼미, 청보, 태평양, 현대. 프로야구 역사에 남은 슬픈 이름들이다. 히어로즈는 2008년 창단된 서울 연고 구단이다. 그러나 그 뿌리는 1982년 프로야구 원년팀 삼미에 있다. 쌍방울과 함께 가장 비운의 팀으로 기억되는 삼미는 팀명과는 정반대로 만년 꼴찌로 기억된다.

1985년 삼미를 인수한 청보도 짧은 3년의 역사 중 2번은 꼴찌, 1번은 뒤에서 2번째였다. 청보는 1986년 시즌 내내 삼 없이 교체되는 투수를 마차로 끌고 나오는 고역을 맡다 난산 끝에 세상을 떠난 마스코트인 암말 핀순이의 최후처럼 쓸쓸히 사라졌다. 1987년 청보를 인수한 태평양도 하위권을 맴돌았다.

1996년 태평양을 인수한 현대는 4차례나

한국시리즈 정상에 오르며 인천야구의 한을 풀어줬지만, 스스로 서울로 이사를 떠났다가 자금난 때문에 수원에 주저앉은 끝에 2007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2008년 현대 선수단과 프런트를 흡수해 창단한 히어로즈는 KBO 역사상 최초의 자립형 구단으로 깃발을 올렸다. 현대도 하지 못한 서울 입성과 안착을 이뤘고, 만년 하위팀에서 포스트시즌 단골팀으로 완곡탈태하는 새 역사를 썼다. 그러나 여전히 히어로즈 앞에 붙는 이름은 슬프다.

2008년 손잡은 첫 번째 네이밍 스폰서 우

리담배와는 그해 7월 짧은 만남을 마감하고 결별했다. 2008년 8월부터 2010년 1월까지는 히어로즈라는 이름만으로 힘겹게 버텼다.

2010년 2월 넥센타이어와 계약해 꿈에 그리던 새 이름을 얻었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았다. 넥센 타이어는 알려진 것보다 적은 예산으로 천문학적인 광고효과를 얻은 뒤 히어로즈와 이별하게 됐다. 그리고 또 다시 새 이름을 얻기 위한 첫 걸음부터 히어로즈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말았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나눔 Lotto 6/45 당첨번호

● 제 673회 Lotto 6/45 당첨번호

당첨번호						2등 보너스 숫자
7	10	17	29	33	44	5

1등 총 당첨금 1,491,453,300원

* 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개입 기준이며, 당첨 개입수가 복수인 경우 균등 배분됩니다. 총 당첨금은 총 판매금액의 50% 이상입니다.

등위 및 당첨자수	당첨금액(원)	당첨금 내역
1등 1명 6개 숫자 일치	10명	1,491,453,300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 35명 5개 숫자 일치	35명	71,021,586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1,864명 5개 숫자 일치	1,864명	1,333,560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88,838명 4개 숫자 일치	88,838명	50,000 50,000원
5등 1,450,769명 3개 숫자 일치	1,450,769명	5,000 5,000원

* 상기 당첨금은 1개입당 당첨금액 기준입니다(세금 공제 전)

- 추첨일 : 2015. 10. 24
- 당첨금 지급기간 :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까지
- 나눔로또 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 www.nlotto.co.kr

로또 구입, 유의사항

● 로또구매는 일확천금의 요행이 아니라 가벼운 오락 게임이며, 자선기부금에는 도박성격을 띠지 않습니다. ● 청소년(19세 미만)은 복권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 복권은 1인당 1회 100원만을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습니다.